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읽고 나서 낱말과
문장을 따라 씁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이야기를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세요.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 너머 장터에 나가 떡을 팔았어요. 떡이 다 팔린 어느 저녁,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줄 떡 한 바구니를 이고 어두워진 고갯길을
서둘러 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고개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길을 막고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떡을 하나 떼어 주었어요. 호랑이는
다음 고개에서도, 그다음 고개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오누이는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어요. 문틈으로 들어온 손에는 굵고
뾰뾰한 털이 잔뜩 나 있었어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와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앞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이어서 읽어 보세요.

오누이를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대답했어요. 호랑이가 미끄러져 자꾸 떨어지자, 이번에는
동생이 그만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잖아!" 하고 말해 버렸어요.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에
빌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뒤따라 빌던 호랑이에게는 낡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줄은 얼마
오르지 못하고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늘에 오른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자 오빠와 자리를
바꾸어, 오빠가 달이 되고 동생이 해가 되었답니다.

한글
D03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나온 낱말입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낱말을 큰 소리로 읽고, 바르게 써 보세요.

<https://i-print.net>

오	누	이	오	누	이
---	---	---	---	---	---

호	랑	이	호	랑	이
---	---	---	---	---	---

통	아	줄	통	아	줄
---	---	---	---	---	---

하	늘	하	늘		
---	---	---	---	--	--

고	개	고	개		
---	---	---	---	--	--

한글
D03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바르게 써 보세요.

<https://i-print.net>

오 누 이 가 살 앓 어 요 .

아이프린트
<https://i-print.net>

아이프린트
<https://i-print.net>

호 령 이 가 나 타 났 어 요 .

아이프린트
<https://i-print.net>

나 무 에 을 라 갔 어 요 .

아이프린트
<https://i-print.net>

아이프린트
<https://i-print.net>

한글
D03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바르게 써 보세요.

<https://i-print.net>

동 아 줄 이 네 러 왔 어 요 .

--	--	--	--	--	--	--	--	--	--	--

하 늘 로 을 라 갔 어 요 .

--	--	--	--	--	--	--	--

해 와 달 이 되 었 어 요 .

--	--	--	--	--	--	--	--	--	--